

국립공원의 자연



임 경 빈
전서울대교수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이란 인류를 위해서 마련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넘어설 수 없다.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고 모른 척하라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그 속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에 인간을 위한다는 사연이 숨어있다.

이 세상과 이 지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다른 생물의 지혜 사이에 무한대가까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인간은 소위 잡식성(雜食性)이라는데 있다. 다른 동물은 먹이의 종류에 제한이 있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먹고 산다. 그리고 그 지혜로서 생활영역이 가장 넓다.

남북극 또 고산의 빙하설원(氷河雪原)을 제외하고서는 삶을 영위하면서 지낼 수 있다. 우주공간에 가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서라도 지구표면의 모든 자원을 이용하면서 집을 짓고 먹어가면서 살 수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자연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생대(生態) 피라미트를 생태학자들은 내세우고 생태계의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질서를 설명한다. 소위 생산자(녹색식물) 그 녹색식물을 먹고사는 식식소비자(食植消費者, 즉 低次消費者) 또 이것을 먹고사는 육식소비자, 즉 고차소비자로 이어지는 영양단계(營養段階)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관리, 자연관리에 인간의 지혜를 투입하는데 설계의 바탕으로 된다.



숲이 울창한 국립공원

그런데 생태피라밋을 생물량을 기준으로 쌓아올릴 때 그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지만 최상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류는 삼각형의 정점을 확장시켜 비정상적인 꼴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는 인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안주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지구의 수용력을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서 자연은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구효용(地球效用)은 생산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자고 절규하고 있다.

자연의 양이 더 많아야 수용력의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이라 하지만 자연의 질(質)에는 천차만차의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한다. 가장 생산적이고 핵을 이루는 자연은 숲이다. 숲은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감사한 에너지를 잡아 두는 가장 뛰어난 장치이다. 만일 지구가 숲으로 덮여 있고 그 소비가 절제 있

게 진행된다면 지구는 늙어 가는 일이 없고 점점 젊어져 간다.

젊다는 것은 에너지의 양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늙었다는 것은 반대로 에너지의 감소, 즉 힘빠진 상태를 뜻한다.

만일 인류가 지상에 없고 다른 생물만이 존재하였다면 지구의 에너지는 넘쳐 흘러서 젊음은 무한한 상태로 진행 될 것이다. 땅 속의 석유와 석탄의 매장량은 증대하여 갈 뿐이고 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이란 말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용어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자연을 절도 있게 다루고 인구증가에 의한 빈곤을 줄여 나간다면 인간사회도 질적으로 젊어갈 수 있다. 인류의 삶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였을 때 우리는 지상낙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민족과 국가로서 구분되면서 집단간의 더 잘살기 위한 경쟁이 있다는 테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구적인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자연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의 인간 인식이 있다. 폭풍과 폭우 등 자연력으로 자연의 정수인 숲이 파괴되어 황폐지로 변하고 홍수가 나서 평야를 쓸어 문을 때 그것은 자연의 작용이고 자연적 경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인류는 지구를 그리고 자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은 인간의 사고의 척도(尺度)로서 가늠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모래사장이 바람과 과도로서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 모래언덕의 자연적 발달을 인공적으로 막아야 한다.

자연이란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더 좋은 자연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떤 종류의 인간 간섭도 배제하여야 만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앞에서 말했지만 인간의 뛰어난 지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 중에서 가장 양질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지대의 존



재적가치(存在的價値)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그래도 원시(原始)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숲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시성은 잘 보존되어야 한다. 1964년 미국에 있어서는 원시지역법(原始地域法, wilderness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사실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입법취지의 한 대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즉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로 무궁하게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위하여서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이란 옳은 것을 옳다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올

바른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꾼으로서의 성실한 국민으로 자라나아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덕목을 몸에 붙이자면 가정 교육으로서도 부족하고 학교교육으로서도 부족하고 종교교육, 사회교육 모두 부족하다. 다만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장엄한 자연에 접촉시키므로서 그곳에서 영감(靈感)에 젖게 하여야 한다. 자연이라든가 원시는 가장 뛰어난 청소년에 대한 교육자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대학(大學)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역설되고 있다. 즉 『人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頽』이 그것인데 자기아들 잘못된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농사가 더 잘된 것으로 가치판단을 잘못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열번 백번 맞는 말이다. 숲, 자연, 원시 그것도 천년의 나이를 헤아리는 아름드리 나무의 밀림 속에 청소년을 둘 때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감은 인간의 심성을 모름지기 갈아치우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울창한 숲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잠재시키고 있다. 그곳 나무의 경제적 가치, 목재의 시장 가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국립공원을 설정해서 간수하고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국립공원 존재의 가장 큰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조용한 분위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각종 자연생물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안에 담긴 삶의 이치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스승이 따로 없는 인간교육의 자습장으로서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다.

국립공원을 이와 같이 아루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대부분이 산악성이고 숲으로 덮여있다.

거대한 몸집의 나무가 뻗뻗히 들어서서 우리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그곳에 담겨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세의 배양 또한 필요하다. 저절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